

# 7월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백 남 용

♩ = 96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제 2번 선법)

1.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2.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3.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4.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1. 물기 없이 마르고 매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2.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3.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4.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그레고리오성가 시편 낭송을 여덟가지 선법에 따라 노래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따릅니다.

가) 후렴은 교중이 함께 부르고, 시편은 합창단의 유니슨이나 독창으로 낭송됩니다.

나) 괄호 안의 음은 해당 가사가 없을 때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다) 악센트 음은 강박자를 갖습니다.